

#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dividual, Relational, and Contextual Variables on  
Dating Violence of Premarital Males and Female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손혜진  
부교수 전귀연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Son, Hye-Jin

Associate Prof. : Jeon, Gwee-Yeon

##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 제기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uch individual, relational, and contextual variables have an effect on the dating violence of premarital males and females. Researched are 369 male and female residents over 19 years who have experienced dating or were involved in any dating relationships in Daegu.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are CTSII scale and scales of relation to individual, relational, and contextual variables. The data are analysed through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 frequency, percentile,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variables that affect doing and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are one's permission degree of dating violence, and psychological abuses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from one's mother.

Corresponding Author: Jeon, Gwee-Ye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1370 Sankyuk Dong Puk-k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2 Fax: 82-53-950-6209 E-mail: gjjeon@knu.ac.kr

Second, relational variables that affect doing and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are control toward one's partner, communication, conflict, commitment, intimacy, satisfaction of dating relationship, and feeling of inferiority toward one's partner.

Third, contextual variables that affect doing and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are familial relationships, friend relationships, and financial stresses.

**주제어(Key Words):** 미혼 남녀(premarital males and females),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individual, relational, and contextual variables), 데이팅 폭력(dating violence)

## I.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오늘날 데이트는 남녀간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단계로서 결혼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트는 오락, 만남, 즐거움, 배우자 선택을 포함하는 명시적인 기능과 사회화, 사회적 지위, 성적 경험 그리고 친밀감과 자아 욕구 충족을 포함하고 있는 잠재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Benokraitis, 1996). 데이트 중의 상호작용은 이성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게 하여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후의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김정란, 1999; 김현옥·김용미, 2001).

데이트 중인 남녀 사이에는 낭만이나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갈등이나 폭력과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데이팅 폭력이 그 중 하나이다. 데이트기간 동안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초 Makepeace (1981)의 연구를 계기로 시작되었는데, 데이트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신체적 폭력이 일어남이 밝혀졌다.

데이팅 폭력의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위협 상태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폭력이 아닐지라도 정서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데이트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Makepeace, 1986). 흔히 피해자는 분노, 공포, 상처받은 느낌 그리고 놀라움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Coffey Leitenberg, Henning, Bennett, & Jankowski, 1996). 이러한 경험은 장기적

으로는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도록 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데이트하는 남성 이외의 모든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게다가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며,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Cascardi & O'Leary, 1992; Aguilar & Nightingale, 1994; Magdol, Moffitt, Caspi, Newman, Fagan, & Silva, 1997). 뿐만 아니라 성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입는다. 성적 폭력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공포증, 성기능 장애, 우울증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Christopher, Madura, & Weaver, 1998).

데이팅 폭력의 영향은 데이트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 후에도 지속되어 부부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Lane & Gwartney-Gibbs, 1985; Flynn, 1987), 데이팅 폭력은 미래의 가정폭력에 대한 훈련장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Benard & Benard, 1983; Roscoe & Benaske, 1985). 이러한 사실은 데이팅 폭력이 관련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단일현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부폭력과 연관성 속에서 접근해야 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부폭력의 예방은 근원적으로는 데이팅 폭력의 예방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팅 폭력 관련변인에 대한 이해는 부부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데이팅 폭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에 폭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Maura, 1997; Maura & Laura, 1998; Molitor &

Tolman, 1998; 김정란, 1999), 데이팅 폭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가해에 초점을 두고 데이팅 폭력의 가해 경향과 변인에 관해서 이루어졌다. 일부 데이팅 폭력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데이팅 폭력의 피해 경향을 파악하거나 피해의 성차 그리고 폭력의 유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Maura & Laura, 1998). 특히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의 발생 비율과 폭력 후 관계 변화 등 실태 파악이 주종을 이루고(김예정·김득성, 1993; 이영숙, 1998; 김현옥·김용미, 2001)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데이팅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해관련 변인과 피해관련 변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데이팅 폭력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폭력과 개인적 특성, 즉 연령, 성별, 가정폭력경험, 성역할 태도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Emery, 1982; Bernard & Bernard, 1983; Makepeace, 1983).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관계적 특성, 즉 친밀감, 의사소통, 통제, 갈등 등과 데이팅 폭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Stets & Henderson, 1991; Stets, 1992; Lloyd & Emery, 1994), 즉 데이팅 폭력의 발생은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특성도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또한 데이팅 폭력은 폭력이 일어나는 당시의 상황적 특성 즉, 생활 스트레스(Makepeace, 1983; Marshall & Rose, 1987)도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국내의 데이팅 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대학생에 국한시키고 있다(김예정·김득성, 1993; 김용미, 1996; 이영숙, 1998; 김예정·김득성, 1999; 김정란, 1999; 유선영, 2000). 그러나 결혼을 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일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데이팅 폭력을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폭력을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데이팅 폭력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

데이팅 폭력과 관련 있는 개인적 변인에는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데이팅 폭력 허용도,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아의 중요한 측면(Rosenberg, 1965)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데이팅 폭력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Burke, Stets, & Pirog-Good, 1989). 자아존중감은 폭력의 빈도나 가혹함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데(Cascardi & O'Leary, 1992), Kaplan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Burk et al, 1988에서 재인용). 반면 자아존중감이 데이팅 폭력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연구(Makepeace, 1981)도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폭력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urke et al, 1989; 김예정·김득성, 1993).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데이팅 폭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인데, Bernard와 Bernard(1985)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데이트 파트너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이성교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를 보고하는 경향이 더 적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은 당연하다는 태도, 성적 폭력의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성적 폭력의 피해는 참아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팅 폭력 허용도 데이팅 폭력 허용도란 폭력 사용에 대한 수용정도로, 연구자들은 폭력을 갈등 해결의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데이트폭력을 증가시킨다고 했다(Burke et al, 1989; Tontodonato & Crew, 1992; O'Keefe, 1998).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사람이 폭력행동을 갈등, 스트레스 혹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수용하여 이성교제 관계에서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Stets & Pirog-Good, 1987), 김예정·김득성(1993)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선영(2000)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데이팅 폭력 허용도가 신체적 폭력 피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학대 경험 아동기 학대 경험이란 아동기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학대받은 정도를 의미하는데, 아동기 학대 경험과 데이팅 폭력과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동기 학대와 데이팅 폭력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데이팅 폭력을 행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주요한 위협 요인이며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다(Follette & Alexandre, 1992; Tontodonato & Crew, 1992; O'Keefe, 1998). 아동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연구도 있다. 데이팅 폭력의 피해자들이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더 많은 학대를 받았으며(Makepeace, 1987), 연구대상 중 아동기에 신체 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의 거의 반 정도가 데이팅 폭력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O'Keefe, 1998). Coffey 등(1996)은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비폭력적인 통제를 받아온 사람과 학대를 받은 사람을 비교하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이 더 많은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Smith와 William(1992)은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현저히 높은 데이트 폭력 발생빈수를 가지나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학대의 경험이 여성에 있어서 위협 요소이지 남성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아동기 학대 경험과 데이팅 폭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 2. 데이팅 폭력과 관련된 관계적 변인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관계적 변인에는 헌신, 친밀감, 파트너에 대한 통제, 의사소통, 갈등,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 이성관계 만족도를 들 수 있다.

헌신 헌신이란 관계의 지속성 및 구속감을 의미하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가 깊을수록 폭력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음이 밝혀졌다(Cate et al, 1982; Henton et al, 1983; Arias, Samios, & O'Leary, 1987; Stets, & Pirog-Good, 1987). 일부 연구(Arias et al, 1987)에서는 데이트 관계의 초기에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데이트 기간이 길수록 헌신도가 높아지고(윤경자, 1996), 관계 내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Roscoe & Benaske, 1985; Arias et al, 1987; Burke et al, 1989; Stets, & Pirog-Good, 1990)고 한다. 관계가 진전되어 두 사람이 결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진지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긴 시간동안 서로에 대해 알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상대방의 불안과 약점 파악과 같은 정보 소유면에서 결혼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로도 갈등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Stets, 1992).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헌신과 데이팅 폭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신과 데이팅 폭력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친밀감 친밀감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까움, 연결감, 유대감을 의미하는데, 친밀감이 높은 커플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Cate et al, 1982; Roscoe & Benaske, 1985). 일부 연구들에서 교제중인 사람들은 데이팅 폭력을 당하거나 행사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

고하였는데(Cate et al., 1982; Roscoe & Benaske, 1985), 이러한 결과는 관계의 친밀함이 폭력을 사랑으로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Flynn, 1987). 국내의 연구 중 김정란(1999)의 연구에서는 친밀감이 낮은 집단이 폭력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에 대한 통제 파트너에 대한 통제는 데이팅 관계에서 파트너의 생각, 느낌 혹은 행동을 자기 방식대로 규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의미하는데, Stets와 Pirog-Good(1990), 그리고 Stets(199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호 통제와 데이팅 폭력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파트너를 통제하려는 욕구는 강한테 비하여 다른 수단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통제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파트너에게 도전하거나 파트너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전략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며(Stets, 1995), 폭력을 가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컸다(Stets & Pirog-Good, 1990; Stets, 1991). 파트너가 해야 할 일이나 파트너가 만나는 사람 등 파트너의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통제 당하는 사람에게는 억압이 되며 관계 내에서 폭력과 같은 역기능적 상호작용 패턴을 이끌 수 있으므로(Stet, 1992)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을수록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서로를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감정, 생각과 태도에 대한 정보를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은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뉘어진다(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 1992). 많은 연구들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폭력행동과 부적 상관관이 있음이 밝혀졌다(Bird, Stith, & Schladale, 1991; Lloyd & Emery, 1994). Follette와 Alexander(1992)는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데이팅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더 큰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밝혔다. Carey와 Mongeau(1996)의 연구에서도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신체적 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Bird 등(199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커플들 사이에서 폭력 행동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갈등 데이팅 갈등은 파트너들이 데이팅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일치로서, 데이팅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은 대부분(95%)이 갈등이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1/3은 그 해결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였다(Lane & Gwartney-Gibbs, 1985). 이는 모든 갈등이 폭력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팅 관계가 갈등이 많고 심각하다면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Straus, Gelles와 Steinments(1980)는 갈등이 언어적 폭력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Stets(1992)의 연구에서 이성교제 관계에서 갈등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Christopher 등(1998)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내에서의 갈등과 성적 폭력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영숙(1998)이 데이팅 폭력을 경험한 대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갈등 해결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이 먼저 발생하고, 이것이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이란 데이팅 파트너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 또는 그럴 때의 불쾌한 감정을 의미한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열등감이라 할 수 있으며, 열등감에 의해 부정적 감정이 수반될 경우 이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등의식이란 인식과 정서가 결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서원, 1997). 최근 열등의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열등의식과 공격성에 관한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Brockner(1983)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 사건에 대해 과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열등의식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이서원, 1997 재인용). 또한 Goldstein(1986)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열등의식과 공격성간의 정적인 관계가 지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열등의식이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는 실증적 조사가 거의 없어 열등 의식이 데이팅 폭력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등의식이 아내구타를 일으킨다는 이서원(1997)의 연구를 볼 때 데이팅 폭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에 대한 만족의 결핍이나 부족은 데이팅 폭력의 가해와 피해 모두와 관련이 있다. 비폭력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데이팅 폭력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이성관계 만족이 더 낮았고(Follette & Alexander, 1992; Bookwala, Frieze, & Grote, 1994), 그들의 난폭한 파트너에 대한 끌림이 줄어들었다(Arias et al, 1989). 이러한 결과는 두 방향에서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낮은 만족감이 피해자를 유발하거나 또는 이것이 데이팅 폭력의 타고난 소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성관계 만족의 결핍은 개인이 신체적 학대를 참거나 심지어 이끌어 내는 성향을 증가시키는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같은 증상과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Lewis & Fremouw, 2001).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이성관계 만족과 데이팅 폭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관계 만족과 데이팅 폭력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데이팅 폭력과 관련된 상황적 변인

데이팅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적 변인에는 생활 스트레스가 있다.

생활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란 생활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안정을 위협하고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상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데이팅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며(Marshall & Rose, 1987), 스트레스는 신체적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akepeace, 1983, 1987; Marshall & Rose, 1987).

Makepeace(198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팅 폭력과 일상생활의 사건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학업 성적, 실직, 역할 상실, 경제적 문제 등 좋지 못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컸다. 중대한 재정적 좌절, 개인적 실패 또는 관계의 종료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생활상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데이팅 폭력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적절한 감정을 일으키는 건전하지 못한 생활상의 변화는 비록 특별히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가해를 일으키는 않을지라도 데이팅 폭력과 관련이 있었다(Makepeace, 1983).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생활 스트레스와 데이팅 폭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 스트레스와 데이팅 폭력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 시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미혼으로,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과거에 사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의 데이팅 파트너와의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420부의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69명)

배경변인	구분	N(%)
성 별	남	156(42.3)
	여	213(57.7)
직 업	학 생	145(39.3)
	공무원, 연구·관리직, 사무직	93(25.2)
	단순노동, 생산·기술직	26( 7.0)
	서비스직	43(11.7)
	기 타	37(10.0)
	무 직	25( 6.8)
나 이	만 19-21세	75(20.3)
	만 22-24세	98(22.6)
	만 25-27세	143(38.8)
	만 28-30세	45(12.2)
	만 31세 이상	8( 2.2)
학 력	고졸(고퇴 포함)	43(11.6)
	전문대졸(중퇴, 재학 포함)	50(13.6)
	대졸(중퇴, 재학 포함)	245(66.4)
	대학원졸(중퇴, 재학 포함)	31( 8.4)

질문지를 직접·간접으로 배부하여 372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는 제외하고 369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데이트 폭력 척도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 그리고 Sugarman(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II)를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각각의 척도는 경미한 수준과 심각한 수준이라는 2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가해와 피해가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해에 있어서 신체적 폭력은 경미한 수준(5문항)과 심각한 수준(4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8과 .85이었다. 심리적 폭력은 경미한 수준(4문항)과 심각한 수준(3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9와 .82였다. 성적 폭력은 경미한 수준(2문항)과 심각한 수준(2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8과 .72이었다.

피해에 있어서 신체적 폭력은 경미한 수준(5문항)과 심각한 수준(4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2과 .89였다. 심리적 폭력은 경미한 수준(4문항)과 심각한 수준(3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7와 .83이었다. 성적 폭력은 경미한 수준(2문항)과 심각한 수준(2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9와 .64이었다.

### 2) 개인적 변인 관련 척도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5였다.

#### (2)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 척도는 김동일(1990)과 윤소영(1989)의 성역할 태도 척도를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다. 성역할 태도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0이었다.

#### (3) 데이트 폭력 허용도

데이트 폭력 허용도 척도는 김정란(1999)의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 허용적임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신체적 폭력의 허용도(3문항), 심리적 폭력의 허용도(2문항), 성적 폭력의 허용도(2문항)의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7, .67, .76이었다.

#### (4) 아동기 학대 경험

아동기 학대 경험 척도는 이해련(1997)과 유선영(2000)의 부모학대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아버지로부터의 학대 11문항, 어머니로부터의 학대 11문항으로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22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각각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아버지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신체적 학대(4문항), 정서적 학대(3문항), 방임(4문항)의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각 .83, .72, .82였다.

어머니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신체적 학대(4문항), 정서적 학대(3문항), 방임(4문항)의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각 .79, .77, .82였다.

### 3) 관계적 변인 관련 척도

#### (1) 헌신

헌신 척도는 윤경자(1996)의 데이트 관계의 헌신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는데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3개 문항으로,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헌신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헌신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7이었다.

#### (2) 친밀감

친밀감 척도는 최혜경·강진경·신수진(1999)의 친밀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함을 의미한다. 친밀감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5이었다.

#### (3) 파트너에 대한 통제

파트너에 대한 통제 척도는 Stets(1992)의 통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자신이 파트너에게 하는 통제와 파트너가 자신에게 하는 통제에 대해 각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총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통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제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각 .79와 .84이었다.

#### (4) 의사소통

의사소통 척도는 Olson 등(1992)의 의사소통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기능적 의사소통(3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6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1, .72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항을 역문항으로 계산하여 합산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갈등

갈등 척도는 Riggs와 O'Leary(1996)의 데이팅 관계 갈등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과의 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갈등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6이었다.

#### (6)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

열등의식 척도는 이서원(1997)의 열등의식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열등의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9이었다.

#### (7) 이성관계 만족도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는 이복동(2001)의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이성관계 만족(7문항), 이성관계 불만족(7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4,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불만족 문항을 역문항으로 계산하여 합산하였으며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상황적 변인 관련 척도

#### (1) 생활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신윤아(1998)의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친구관계 스트레스(3문항), 경제문제 스트레스(3문항), 장래 및 진로문제 스트레스(3문항), 가족관계 스트레스(3문항), 가치관 및 종교문제 스트레스(3문항)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8, .78, .87, .82, .84이었다.

### 3. 자료의 수집절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를 2001년 8월 8일부터 9월 10일에 걸쳐 대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Wi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각 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개인적 변인, 관계적 변인,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데이팅 폭력(신체적, 심리적, 성적) 허용도, 아동기 학대 경험(아버지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과 어머니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관계적 변인인 헌신, 친밀감, 통제

(자신의 파트너 통제, 파트너의 자신 통제), 의사소통, 갈등,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 이성관계 만족, 그리고 상황적 변인인 생활 스트레스(친구관계, 경제문제, 장래 및 진로문제, 가족관계, 가치관 및 종교문제)를 중심으로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7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735에서 2.275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해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316$ ), 신체적 폭력 허용도( $\beta=.289$ )의 순으로 경미한 신체적 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

<표 2>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신체적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남/여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증가	R <sup>2</sup>	F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해	남성(D.W =2.129)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경험 신체적 폭력 허용도 (상수)	.488 .206 2.988	.316** .289**	.119 .083	.202	7.691***
	여성(D.W =1.821)	갈등 자신의 파트너 통제 신체적 폭력 허용도 친구관계 스트레스 (상수)	.007 .139 .237 .110 1.225	.279** .212* .307** .237*	.149 .075 .050	.334	12.156***
심각한 신체적 폭력 가해	남성(D.W =2.121)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상수)	.355 2.927	.397**	.158	.158	11.617**

\*P < .05 \*\*P < .01 \*\*\*P < .001

이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20.2%였다.

여성의 경우, 갈등( $\beta=.279$ ), 자신의 파트너 통제( $\beta=.212$ ), 신체적 폭력 허용도( $\beta=.307$ ), 친구관계 스트레스( $\beta=.237$ )의 순으로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갈등이 많을수록, 자신이 파트너를 많이 통제할수록, 신체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33.4%였다.

심각한 신체적 폭력 가해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397$ )이 심각한 신체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심각한 신체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15.8%였다.

여성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선택된 변인들 중에는 심각한 심리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미한 심리적 폭력 가해 남성의 경우, 심리적 폭력 허용도( $\beta=.413$ )가 경미한 심리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심리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경미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경미한 심리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17.0%였다.

여성의 경우, 갈등( $\beta=.262$ ), 자신의 파트너 통제( $\beta=.413$ ),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220$ ), 친밀감( $\beta=-.202$ )의 순으로 경미한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즉 갈등이 많을수록, 자신이 파트너를 많이 통제할수록,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친밀감이 낮을수록 경미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경미한 심리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35.6%였다.

심각한 심리적 폭력 가해 남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 허용도( $\beta=.293$ )가 심각한 심리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신체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경미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하였다. 이 변인이 심각한 심리적 폭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8.6%였다.

여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227$ ), 심리적 폭력 허용도( $\beta=.243$ ), 자신의 파트너 통제( $\beta=.214$ ), 헌신( $\beta=-.186$ )의 순으로 심각한 심리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폭

〈표 3〉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심리적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남/여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증가	R <sup>2</sup>	F
경미한 심리적 폭력 가해	남성(D.W =2.275)	심리적 폭력 허용도 (상수)	.527 3.024	.413**	.170	.170	12.728**
		갈등	.009	.262**	.172		
	여성(D.W =2.028)	자신의 파트너 통제	.368	.413***	.098	.356	13.401***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262	.220**	.055		
		친밀감 (상수)	-.006 1.214	-.202*	.031		
심각한 심리적 폭력 가해	남성(D.W =2.087)	신체적 폭력 허용도 (상수)	.116 2.657	.293*	.086	.086	5.827*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227	.277**	.115		
	여성(D.W =1.945)	심리적 폭력 허용도	.151	.243**	.070	.251	8.126***
		자신의 파트너 통제	.007	.214*	.033		
		헌신 (상수)	-.005 1.664	-.186*	.033		

\*P < .05 \*\*P < .01 \*\*\*P < .001

〈표 4〉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성적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남/여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증가	R <sup>2</sup>	F
경미한 성적 폭력 가해	남성(D.W =1.735)	성적 폭력 허용도 (상수)	.194 1.713	.340**	.116	.116	8.108**
	여성(D.W =1.979)	갈등 (상수)	.002 2.073	.197*	.038	.038	4.177*
심각한 성적 폭력 가해	남성(D.W =2.138)	성적 폭력 허용도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상수)	.009 .155 1.298	.254* .245*	.078 .059	.138	4.867*
	여성(D.W =1.898)	성적 폭력 허용도 헌신 (상수)	.002 -.008 2.025	.269** -.209*	.074 .044	.118	6.624**

\*P &lt; .05 \*\*P &lt; .01 \*\*\*P &lt; .001

력에 허용적일수록, 자신이 파트너를 많이 통제할수록, 헌신이 낮을수록 심각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심각한 심리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25.1%였다.

경미한 성적 폭력 가해 남성의 경우, 성적 폭력 허용도( $\beta=.340$ )가 경미한 성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성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경미한 성적 폭력을 많이 하였다. 이 변인이 경미한 성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11.6%였다.

여성의 경우, 갈등( $\beta=.197$ )이 경미한 성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갈등이 많을수록 경미한 성적 폭력을 많이 하였다. 이 변인이 경미한 성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3.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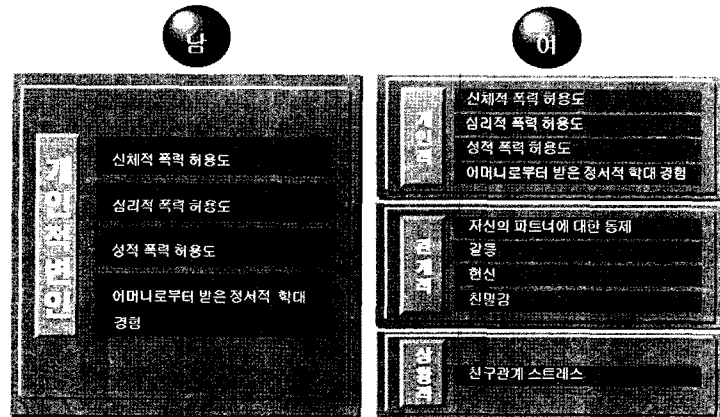
심각한 성적 폭력 가해 남성의 경우, 성적 폭력 허용도( $\beta=.254$ ),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245$ )의 순으로 심각한 성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성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심각한 성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심각한 성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13.8%였다.

여성의 경우, 성적 폭력 허용도(.269), 헌신( $\beta=-.209$ )의 순으로 심각한 성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성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헌신이 낮을수록 성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심각한 성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11.8%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데이팅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1 참고). 남성의 경우는 개인적 변인 중 일부 변인인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허용도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는 개인적 변인 중 일부 변인인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허용도,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관계적 변인 중 일부 변인인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통제, 갈등, 헌신, 친밀감, 상황적 변인 중 일부 변인인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데이팅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팅 폭력 허용도 중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허용도는 남녀의 데이팅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가해와 심각한 심리적, 성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해와 심각한 심리적, 성적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데이팅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남성은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경미한 신체적 폭력과 심각한 심리적, 성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을 갈등을 해결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데이팅 폭력 가해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Tontodonato & Crew, 1992; O'Keefe, 1998)와 일치



〈그림 1〉 성별에 따른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회의 폭력 수용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에서 폭력에 대해 점점 허용적이 되어가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각성과 비판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학대 경험 중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은 남녀의 데이팅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해와 심각한 신체적, 성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 경미한 심리적 폭력 가해와 심각한 심리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남성은 경미한 신체적 폭력과 심각한 신체적, 성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경미한 심리적 폭력과 심각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신체적 폭력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결과(Laner & Thompson, 1982; Marshall & Rose, 1987),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성인기의 폭력 가해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결과(Swinford, DeMaris, Cernkovich, & Giordano, 2000), 그리고 아동기의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는 데이팅 폭력의 증가와 관련있다는 연구결과(Sappington, Pharr, Tunstall, & Rickert, 1997)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팅 폭

력의 가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원가족의 부모가,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신체적 학대 경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아동기 학대 경험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데이팅 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성인 모델의 폭력 사용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게 되면 폭력의 사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행동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아동기의 체벌 경험을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트너에 대한 통제 중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통제는 여성의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 가해와 심각한 심리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파트너 통제를 많이 할수록 여성은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과 심각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는 파트너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며 여러 방법을 사용해 파트너에 통제를 가하게 되는데, 시도된 방법들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최후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데(김예정·김득성, 1999a), 이는 폭력이 파트너에 대한 통제를 재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연구결과(Stets & Pirog-Good, 1990; Stets, 1991, 1992; Maura & Laura, 1998)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이 파트너를 많이 통제할수록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은 여성의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갈등이 많을수록 여성은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팅 관계에서 갈등이 많을수록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Lane & Gwartney-Gibbs, 1985; Stet, 1992; Riggs & O'Leary, 1996)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이 폭력을 예측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협상과 화해의 전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가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밀감은 여성의 경미한 심리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친밀감이 적을수록 여성은 경미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밀해질수록 폭력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Cate et al., 1982; Roscoe & Benaske, 1985)와는 상반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데이팅 폭력과 친밀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데이팅 폭력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적 폭력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한 후, 친밀감과 데이팅 폭력 가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헌신은 여성의 심각한 심리적, 성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헌신이 낮을수록 심각한 심리적, 성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신이 높을수록 폭력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Cate et al., 1982; Henton et al., 1983; Arias, Samios, & O'Leary, 1987; Stets & Pirog-Good, 1987)와는 상반되는 것인데, 여성은 데이트 기간이 길거나(19개월 이상) 결혼을 약속한 커

플일 때 헌신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윤경자, 1996)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 중 70%정도가 교제 기간이 18개월 미만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22.5%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다수 여성의 헌신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헌신과 데이팅 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교제 기간이 좀더 오래되고 헌신수준이 높은 연구 대상자들을 포함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활 스트레스 중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여성의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여성은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특별히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가해가 아닐지라도 부적합하고 비건전한 생활의 변화는 높은 데이팅 폭력가해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Makepeace, 1983, 1987; Marshall & Rose, 1987)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해결 기술을 수반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의 발달은 대인 관계, 친밀한 인간 관계에서 분노의 통제와 갈등의 건설적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해져 폭력으로 표출되는 빈도를 감소시키므로(Barnes, Greenwood, & Sommer, 1991; Follingstad, Wright, Lloyd, & Sebastian, 1991; Riggs, 1993), 데이팅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피해 남성의 경우, 경제문제 스트레스( $\beta=.396$ ),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232$ )가 경미한 신체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문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경미한 신체적 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15.4%였다.

〈표 5〉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신체적 데이팅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남/여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증가	R <sup>2</sup>	F
경미한 신체적 폭력 피해	남성(D.W =1.874)	경제문제 스트레스	.236	.396*	.092	.154	5.215**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상수)	.374 3.537	.232*	.062		
	여성(D.W =1.761)	파트너의 자신 통제	.163	.285**	.105	.264	
		이성관계 만족 신체적 폭력 허용도 가족관계 스트레스 (상수)	-.004 .158 .010 4.788	-.288** .238* .222*	.080 .034 .234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남성(D.W =2.150)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상수)	.497 2.462	.474***	.224	.224	17.936***
	여성(D.W =1.959)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 (상수)	.007 3.372	.272**	.074	.074	7.971

\*P < .05 \*\*P < .01 \*\*\*P < .001

여성의 경우, 파트너의 자신 통제( $\beta = .285$ ), 이성관계 만족( $\beta = -.288$ ), 신체적 폭력 허용도( $\beta = .238$ ), 가족관계 스트레스( $\beta = .222$ )의 순으로 경미한 신체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파트너가 자신을 많이 통제할수록, 이성관계 만족이 적을수록, 신체적 폭력을 많이 허용할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경미한 성적 폭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26.4%였다.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

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 = .474$ )이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22.4%였다.

여성의 경우,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 $\beta = .272$ )이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이 많을수록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7.4%였다.

〈표 6〉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심리적 데이팅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남/여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증가	R <sup>2</sup>	F
경미한 심리적 폭력 피해	남성(D.W =1.899)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585	.337**	.121	.193	7.294**
		경제문제 스트레스 (상수)	.171 1.644	.263*	.072		
	여성(D.W =1.860)	파트너의 자신 통제	.254	.422***	.182	.330	
		이성관계 만족 신체적 폭력 허용도 (상수)	-.004 .155 4.125	-.302*** .222**	.099 .049		
심각한 심리적 폭력 피해	남성(D.W =2.104)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가족관계 스트레스 (상수)	.252 .008 1.809	.281* .280*	.070 .079	.149	5.328**

\*P < .05 \*\*P < .01 \*\*\*P < .001

경미한 심리적 폭력 피해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337$ ), 경제문제 스트레스( $\beta=.268$ )이 경미한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경제문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경미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경미한 심리적 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19.3%였다.

여성의 경우, 파트너의 자신 통제( $\beta=.422$ ), 이성관계 만족( $\beta=-.302$ ), 신체적 폭력 허용도( $\beta=.222$ )의 순으로 경미한 심리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파트너가 자신을 많이 통제할수록, 이성관계 만족이 낮을수록, 신체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경미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경미한 심리적 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33.0%로 나타났다.

심각한 심리적 폭력 피해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281$ ), 가족관계 스트레스( $\beta=.280$ )가 심각한 심리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심각한 심리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심각한 심리적 폭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14.9%였다.

여성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선택된 변인들 중에는 심각한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미한 성적 폭력 피해 남성의 경우, 성적 폭력 허용도( $\beta=.304$ ), 친구관계 스트레스( $\beta=.302$ )가 경미한 성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성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경미한 성적 폭력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경미한 성적 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16.0%였다.

여성의 경우, 갈등( $\beta=.367$ )이 경미한 성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갈등이 많을수록 경미한 성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경미한 성적 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13.5%였다.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beta=.304$ )이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심각한 성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9.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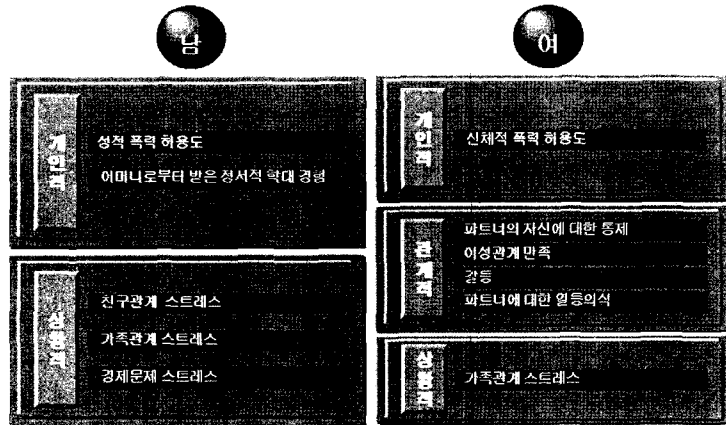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 허용도( $\beta=.213$ )가 심각한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신체적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심각한 성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정도는 4.6%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데이팅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2 참고). 남성의 경우 개인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

〈표 7〉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성적 데이팅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남/여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증가	R <sup>2</sup>	F
경미한 성적 폭력	남성(D.W = 2.182)	성적 폭력 허용도	.108	.304*	.070	.160	5.783**
		친구관계 스트레스 (상수)	.006	.302*	.090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남성(D.W = 2.047)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상수)	.174	.304*	.092	.092	6.303*
		신체적 폭력 허용도 (상수)	.005	.213*	.046		
경미한 성적 폭력	여성(D.W = 2.170)	갈등 (상수)	.005	.367***	.135	.135	15.611***
		파트너의 자신 통제 (상수)	1.479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	여성(D.W = 1.975)	신체적 폭력 허용도 (상수)	.005	.213*	.046	.046	4.774*
		이성관계 만족 (상수)	1.946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성별에 따른 데이팅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일부 변인인 성적 폭력 허용도,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 친구관계·가족관계·경제문제 스트레스가 데이팅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 중 일부 변인인 신체적 폭력 허용도, 파트너의 자신에 대한 통제, 이성관계 만족, 갈등,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데이팅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팅 폭력 중 신체적, 성적 폭력 허용도는 남녀의 데이팅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경미한 성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 경미한 신체적 폭력과 경미한 심리적 폭력 피해 및 심각한 성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데이팅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남성은 경미한 성적 폭력을 많이 당했고, 여성은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과 심각한 성적 폭력을 많이 당했다. 이는 데이팅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커진다는 연구결과(유선영, 2000)나 데이팅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와 피해 경험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결과(Cate et al., 1982)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에 대해 점점 허용적이 되어가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각성과 비판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학대 경험 중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은 남성의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과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남성은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과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많이 당했다. 이는 데이팅 폭력 피해자들이 더 많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Makepeace, 1987; Smith & William, 1992; Coffey et al., 1996)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팅 폭력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가정에서는 근원가족의 부모가,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자제해야 하며, 사회에서는 부모와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에 대한 통제 중 파트너의 자신에 대한 통제는 여성의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파트너가 자신에게 통제를 많이 할수록 여성은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많이 당한다고 느낀다. 이는 상호통제와 데이팅 폭력이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Stets & Pirog, 1990; Stets, 1991, 1992)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너가 자신을 많이 통제할수록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팅 파트너가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할 때는 데이팅 파트너와의 관계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관계 만족은 여성의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성관계 만족이 낮을수록 여성은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많이 당했다. 이는 비폭력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데이팅 폭력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성관계 만족이 더 낮았다는 연구결과(Follette & Alexander, 1992; Bookwala, et al., 1994)와 일치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성관계 만족과 데이팅 폭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갈등은 여성의 경미한 성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갈등이 많을수록 여성은 경미한 성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과 성적 폭력의 정적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Christoher et al., 1998)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이 있을 때, 화난 감정이나 분노를 다루는 기술이나 갈등대처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건강한 데이트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은 여성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이 높을수록 여성은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등의식과 공격성의 정적 관계를 밝힌 연구(Brockner, 1983; Goldstein, 1986; 이서원, 1997)는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열등의식과 데이팅 폭력 피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활 스트레스 중 가족관계·친구관계·경제문제 스트레스는 남녀의 데이팅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경미한 심리적, 성적 폭력 피해와 심각한 심리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 경미한 신체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경미한 심리적, 성적 폭력을 많이 당했

고, 여성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했다. 이는 스트레스성 생활 사건은 남성과 여성 모두 데이팅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Mashall & Rose, 1987)와 일치하는 것이다. 좋지 못한 생활 사건은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적절하게 발달시키게 되면 대인 관계, 친밀한 인간 관계에서 분노의 통제와 갈등의 건설적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해져 폭력으로 표출되는 빈도가 감소하게 된다(Barnes et al., 1991; Follingstad et al., 1991; Riggs, 1993). 따라서 데이팅 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훈련도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데이팅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개인적 변인 중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허용도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우는 개인적 변인 중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허용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경험, 관계적 변인 중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통제, 갈등, 헌신, 친밀감, 상황적 변인 중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데이팅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데이팅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개인적 변인 중 성적 폭력 허용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경험, 상황적 변인 중 친구관계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경제문제 스트레스가 데이팅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우는 개인적 변인 중 신체적 폭력 허용도, 관계적 변인 중 파트너의 자신에 대한 통제, 이성관계 만족, 갈등, 파트너에 대한 열등의식, 상황적 변인 중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데이팅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에 대해 점점 허용적이 되어 가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각성과 비판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데이팅 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원가족의 부모가,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파트너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삼가 해야 하며, 갈등이 있을 때, 화난 감정이나 분노를 다루는 기술이나 갈등대처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건강한 데이트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생활 사건은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데이팅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훈련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상황적 변인으로 생활 스트레스만을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음주, 약물,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19세 이상의 미혼 남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데이트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년기나 노인들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재혼을 위한 데이트 관계에서의 데이팅 폭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팅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김동일(1996). 남녀차이: 사회심리학적 측면. 성의

사회학. 문음사. 73-102.

김예정, 김득성(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 - 대학생들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1(2), 127-139.

김예정, 김득성(1999). 데이팅 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87-211.

김예정, 김득성(1999a).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I) - 가해자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김용미(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김정란(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옥, 김용미(2001). 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 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85-199.

신윤아(1998).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경자(1996). 데이트 관계에서 헌신의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4(4), 393-402.

윤소영(1989). 모-녀간의 성역할 태도 일치도 및 관련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복동(2001).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서원(1997). 열등의식과 성역할 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학지사. 258-280.

이혜련(1998).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

- 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경, 강진경, 신수진(1999).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에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47-59.
- Aguilar, R & Nightingale, N. (1994). The impact of specific battering experiences on self-esteem of abus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9, 35-45.
- Arias, I., Samios, L., & O'Leary, K. (1987).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during court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82-90.
- Bames, G. E., Greenwood, L., & Sommer, R. (1991). Courtship violence in a Canadian sample of male college student. *Family Relations*, 40, 37-44.
- Bernard, M. & Bernard, J. (1983).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32, 283-286.
- Bernard, J. L. & Bernard, M. L. (1985). Courtship violence and sex-typing. *Family Relations*, 34, 573-578.
- Benokraitis, M. V. (1996). *Becoming a couple: Dating, rating, and mating*. Family violence and other crisis-related issues. In Benokraitis, M. V.(Ed.), *Marriage and Families*(pp. 219-228, 415-448). Prentice-Hall, Inc.
- Bird, G., Stith, S., & Schladale, J. (1991). Psychological resources, coping strategies, and negotiation styles as discriminators of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0, 45-50.
- Bookwala, J., Frieze, I., & Grote, N. (1994). Love, aggression, and satisfaction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625-632.
- Burk, P. J., Stets, J. E., & Pirog-good, M A. (1989). *Gender identity, self-esteem, an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In M. A. Pirog-Good & J. E.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pp.72-93). New York: Praeger.
- Carey, C. M. & Mongeau, P. A. (1996). Communication and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hips. In Cahn, D., & Lloyd, S.(Eds.), *Family violence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pp. 127-15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ascardi, M. & O'Leary, K. (1992). Depressive symptomatology, self-esteem, and self-blame in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249-259.
- Cate, R. M., Henton, J. M., Koval, J. E, Christopher, F. S., & Lloyd, S. A.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 3, 79-90.
- Christopher, F. S., Madura, M., & Weaver, L. (1998). Premarital sexual aggressors: A multivariate analysis of social, relational, and individual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6-69.
- Coffey, P., Leitenberg, H., Henning, K., Bennett, R., & Jankowski, M. (1996). Dating violence: The association between methods of coping and women's psychological adjustment. *Violence and Victims*, 11, 227-238.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Flynn, C. P. (1987). Relationship violence: A model for family professionals. *Family Relations*, 36, 295-299.
- Follette, V. & Alexander, P.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al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Follingstad, D. R., Wright, S., Lloyd, S., & Sebastian (1991). Sex differences in motivations and effects in dating violence. *Family Relations*, 40, 51-57.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 Family Violence*, 10, 351-377.
- Goldstein, J. H. (1986). Aggression and Crimes of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67-177.
- Henton, J. M., Cate, R. M., Koval, J. E., Lloyd, S. A., & Christopher, F. S.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 4, 467-482.
- Lane, K. & Gwartney-Gibbs, P. (1985). Violence in context of dating and sex. *Journal of Family Issues*, 6, 45-59.
- Laner, M. & Tompson, J. (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ing couples. *Deviant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3, 224-229.
- Lewis, S. F. & Fremouw, W (2001). Dating Viol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5), 105-127.
- Lloyd, S. A. & Emery, B. C. (1994). *Physically aggressive conflict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Cahn, D. D.(Eds.), *Conflict in personal relationships*(pp. 27-46):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agdol, L, Moffitt, T., Caspi, A., Newman, D., Fagan, J., & Silva, P. (1997). Gender differences in partner violence in a birth cohort of 21-year-olds: Bridging the gap between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approach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68-78.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kepeace, J. M. (1983). Life events, stress, and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32, 101-109.
- Makepeace, J. M. (198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383-388.
- Makepeace, J. M. (1987). Social factors and victim off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36, 87-91.
- Marshall, L. & Rose, P. (1987). Gender, stress, and violence in adult relationships of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299-316.
- Maura, O'keefe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Maura O'keefe & Laura, T. (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Violence Against Women*, 4(2), 195-223.
- Molidor, C.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2), 180-194.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Olson, David H., McCubbin, Hamilton I., Barnes, Howard., Larsen, Andrea., Muxen, Marla., & Wilson, Marc. (199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47-53.
- Riggs, D. (1993). Relationship problems and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 18-35.
- Riggs, D. & O'Leary, K.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oscoe, B. & Benaske, N. (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Similarities in pattern of abuse. *Family Relations*, 34, 419-42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ppington, A. A., Pharr, R., Tunstall, A., & Rickert, E. (1997). Relationships among child abuse and psychological problem.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4), 319-329.
- Smith, J. & Williams, J. (1992). From abusive

-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153-165.
- Stets, J. E. (1991). Psychological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Journal of Family Violence*, 6, 97-113.
- Stets, J. E. (1992). Interactive proces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65-177.
- Stets, J. E. (1995). Modeling control in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89-501.
- Stets, J. & Henderson, D.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Stets, J. E. & Pirog-Good, M. A. (1990). Interpersonal control and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371-394.
- Straus, M. A. & Gelles, R. J., Steinments,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Doubleday.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winford, S. P., DeMaris, A., Cernkovich, S. A., & Giordano, P.C. (2000). Harsh physical discipline in childhood and violence in late romantic involvement: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508-51.
- Tontodonato, P. & Crew, B.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3-14.

(2002년 11월 28일 접수, 2003년 1월 29일 채택)